

회독의 중요성



이 종 탁

- 대구 경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
- 前) 중소기업중앙회
- 前)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
- 現)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종탁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약 4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 전, 법학공부를 한 적이 없는 상태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공부방법에 정답은 없고 각자 상황과 성향에 맞는 공부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글이 저마다의 상황에서 꿈을 갖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제 경험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II. 변호사시험 공부방법

1. 수험법학 특성의 이해

- (1) 법학에 대한 기본지식 없이 처음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면 방대한 양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변호사시험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① 공부해야 할 양이 방대하고 ②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등 시험 유

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완벽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 어렵고 ③ 그에 따른 심적 압박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변호사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이 적은 양의 공부를 완벽히 하여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시험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방대한 양의 내용을 시험직 전까지 최대한 머릿속에 집어 넣고 최선의 점수를 받아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 (2) 아래에서 서술할 공부방법은 이러한 변호사시험의 특성에 맞추어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려는 공부는 지양하고 ① 효율적이고 ② 시험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빠뜨리지 않고 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2. 회독과 책 정리의 중요성

- (1) 수험법학은 그 양이 매우 방대하므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매우 비효율적이고 힘듭니다. 때문에 모든 내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넘기고 굵직한 원칙들과 개념들을 이해하면서 빠른 시간내에 줄기를 세우고 회독을 반복하면서 가치를 붙여나가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꼼꼼히 1번 읽는 것보다 빠르게 3번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과목 내에서 후반부를 읽어야 전

반부의 내용이 이해가 되거나 다른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책을 읽을 당시에는 이해하고 암기하였더라도 워낙 많은 양의 내용을 공부해야 하기에 한번 회독할 때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면 다시 같은 책을 읽을 때에는 어렵קות한 개념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많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2) 따라서 회독을 하면서 책 정리를 해놓지 않는다면, 첫 회독 시 겪었던 지난한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회독시 책을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반드시 책 정리를 하면서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책 정리법은 항을 바꾸어 서술하겠습니다.

3. 책 정리법 및 정리한 책 읽는 법

- (1) 책 정리를 하는 목적은 ① 다음 회독 시 회독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② 시험을 치르기 전 빠르게 볼 수 있으면서도 ③ 실제 시험에서 적은 리스크로 고득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택형 문제집을 제외한 모든 책은 중요도와 모르는 것(내가 답안지에 현출할 수 없는 것)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2) 먼저, 중요도란 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② 대부분의 수험생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③ 출제될 경우 배점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중요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① 과거 변호사시험 또는 변호사시

협 모의시험에서 빈출된 정도 및 배점 ② 학교 수업과 학원 강의에서 교수님과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 강의하는지 여부 ③ 교재의 중요도 표시를 활용하였습니다. 중요도의 표시는 책의 양쪽 여백을 활용하여 해당 내용의 좌측 여백 부분에 별표 개수(★★★, ★★, ★)를 표시하였습니다.

(3) 다음으로, 모르는 것은 책의 본문에 밑줄(또는 형광펜)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모르는 것이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내가 현출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독을 하면서 모르는 것이 나오면 실제 답안지에 현출할 키워드, 결론에 밑줄(또는 형광펜) 표시를 하였습니다. 키워드와 결론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에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1회독 때에는 연필(또는 연한 색 형광펜)로 표시하고 회독을 늘려갈수록 진한 색깔 펜(또는 형광펜)을 사용하여 기존 표시위에 덧씌우는 방법으로 책을 정리하였습니다.

(4) 이때 회독 방법이 중요합니다. 1회독 시에는 중요도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만 연한 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2회독 시에는 표시가 된 부분만 읽으면서 모르는 부분을 좀 더 진한 색으로 덧씌워 표시하였습니다. 3회독 때에는 표시되지 않은 부분까지 읽으면서 ① 중요도를 양쪽 여백에 표시하고 ② 아직까지 모르는 것을 더 진한 색으로 덧씌워 표시하였습니다.

4회독 시에는 3회독 시 표시한 부분만 읽으면서 4회독 시에도 모르는 부분을 더욱 진한 색으로 표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회독을 하면 공부가 쌓일수록 회독 시간이 훨씬 줄어들어 많은 양의 공부를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게 됩니다.

(5) 이런 방식으로 책정리를 하는 이유는 결국 시험을 잘 보기 위함입니다. 즉, 시험 직전에 많은 양을 커버할 수 있는 나만의 책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책을 시험전에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책의 양쪽 여백만 확인하여 별표 3개(★★★)가 표시된 부분만 읽습니다. 그 다음 책의 처음으로 돌아가 별표 2개(★★)가 표시된 부분만 읽고 다시 별표 1개(★)가 표시된 부분만 읽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마지막 회독 때 모르는 것으로 표시된 부분만 읽습니다. 그래도 시험까지 시간이 남는다면 그 직전 회독에 모르는 것으로 표시된 부분을 읽습니다.

(6) 책 정리부터 시험 직전 책을 읽는 방법까지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① 변호사시험은 표준점수체계를 활용하므로 다른 수험생들이 대부분 아는 내용을 쓰지 못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② 짧은 시간에 전범위를 봐야하는 상황에서 시간의 부족으로 특정 범위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③ 시험 직전에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선별하는 시간을 쓰지 않기 위함입니다.

4. 선택형 공부법

- (1) 많은 분들이 법학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형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1, 2학년때 선택형 공부를 등한시 하다가 변호사 시험이 다가와 느지막이 선택형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선택형 공부를 미루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선택형 공부는 휘발성이 강해서 미리 준비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위의 조언도 많을 것입니다. 이는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하므로 저는 아래와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 (2) 선택형 선지는 단순암기형 선지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선지로 구분됩니다. 단순암기형 선지(예를 들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는 미리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필요로 하는 선지는 미리 공부하여야 하며, 기본서를 공부하며 모호했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기능도 합니다.
- (3) 따라서 선택형 1회독 시에는 단순암기형 선지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선지를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선지만 회독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이 다가오면 단순암기형 선지만 외우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선지는 반드시 미리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 선택형 공부 시에도 회독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1회독 시에는 단순암기형 선지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선지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각각의 선지에 대하여 OX문제를 푼다는 생각으로 선지 왼쪽 여백에 O, X, △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때, O는 아는 것(시험에 출제되면 정확히 OX를 구분할 수 있는 것), X는 모르는 것, △는 안다고 생각하고 풀었지만 정답이 반대인 것입니다. 이때, △표시된 선지가 점수를 떨어뜨리는 가장 주요한 요인입니다. 5지선다 문제에서 △표시된 선지가 없다면 고민하고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오답을 선택하게 만드는 선지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다보면 생각보다 △표시된 선지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5) 그리고 매 회독마다 O, X, △ 표시를 하고 O가 세 개 쌓인 선지는 다음 회독 시 읽지 않았습니다. O표시가 3개 쌓였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나면 어떻게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O 표시를 보수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으며 문제를 풀었을 때 3번 이상 확실히 아는 것은 장기기억으로 넘어간 내용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실제 시험에서도 유효했습니다. 회독이 늘어날수록 읽는 양이 줄어들고 속도가 붙어 4회독 이후부터는 2시간에 한 과목 정도를 볼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5. 최신판례의 공부법

(1) 최신판례는 변호사시험 6개월 전까지의 판례가 출제되는데 양에 비해 출제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숙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매년 새로 출간되는 최신판례 정리집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판례의 전문 혹은 판시사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책이 많습니다. 이는 판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나 양이 상당하여 빠르게 회독하는데 부담이 됩니다.

(2) 최신판례는 시중에 출간된 암기장이나 정리본, 요약본 등이 따로 없으므로 저는 빠르게 회독하기 위하여 직접 모든 과목의 최신판례 정리본을 작성하였습니다. 최신판례가 시험에 출제된다면 답안에 현출할 중요한 논거 키워드와 결론을 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여 출제가 될 경우 해당 최신판례를 묻는 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 고유권한사항에 대해
 - 사전적 적극적 개입 X사후적 소극적 개입 ○
 - 사실관계) 이미 설치된 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 조례 개정안
 - 교육감의 조직편성권 침해 X

Ⅲ. 마치며

1. 각자가 처한 상황과 능력, 성향은 모두 다르고 공부방법에 왕도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법시험 경험이나 수험법학에 대한 연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성적을 올리고 변호사시험에 고득점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찾은 방법은 효율적이고 수험적합적으로 책을 회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갖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였으나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에게 큰 기쁨일 것입니다.

2. 이 글을 빌어, 직장을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겠다는 결정을 흔쾌히 믿고 응원해주신 양가 부모님, 희노애락을 함께해준 사랑하는 아내, 아직도 형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믿어주는 동생과 수험기간 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3.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이 빛을 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